



# 배경사



## 1 Jesus 제15장 “그 사람의 아들”의 말씀으로서의 최후의 만찬의 말씀

- ▶ 마가복음 10:45 분석을 통해 예수님이 “인자”로서 최후 만찬 말씀하심 증명
- ▶ 막 10:45과 최후 만찬 말씀의 배경으로써 이사야 43장과 이사야 53장
- ▶ 최후만찬 말씀에 나타난 “그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 사역 이해
- ▶ 최후의 만찬에 나타난 예수의 자기 이해와 신약의 다른 본문들의 이해의 일치성
- ▶ 최후 만찬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의 의도



## 1. 마가복음 10:45 분석을 통해 예수님이 “인자” 로서 최후 만찬 말씀하심 증명

- 최후 만찬 말씀들은 예수의 자기 계시 핵심, 그 인격과 사역 이해 결정적 단서제공.
- 예수가 “그 ‘사람의 아들’”로 최후만찬말씀 했다면, “그 ‘사람의 아들’” 이해 큰 도움.
- 마가복음 10:45과 최후 만찬 말씀들 사이 접촉점은 “그 ‘사람의 아들’” 칭호



## 1) 마가복음 14:21 (=마 26:24)

Jesus

“인자 [그 사람의 아들]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 [그 사람의 아들]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 ▶ 최후 만찬 제정 말씀 그 ‘사람의 아들’ 말씀: (비교: 눅 22:22).
- ▶ 예수님은 죽음을 그의 사명 일부로 보고 자기 칭호로 죽음 예언.

1. 마가복음 10:45 분석을 통해 예수님이 “인자”로서 최후 만찬 말씀하심 중





## 2) 요한복음 6:53

Jesus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 요한 판 최후 만찬 말씀들은 “그 ‘사람의 아들’”로서 말씀. 예언.

1. 마가복음 10:45 분석을 통해 예수님이 “인자”로서 최후 만찬 말씀하심 중

명



### 3) 누가 판 최후 만찬 말씀(눅 22:28~30)

Jesus

- ▶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으로 주어서”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그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 .
- ▶ 마태 판 (마 19:28)에는 “그 ‘사람의 아들’”이 주어. “그 ‘사람의 아들’”이 대개 마태 첨가로 간주되나 “그 ‘사람의 아들’”이 원래적인 것이고 누가가 22:22에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 했으므로 여기서 “나”로 대치 가능.

1. 마가복음 10:45 분석을 통해 예수님이 “인자”로서 최후 만찬 말씀하심 중



## 4) 요한복음 13:31

Jesus

- ▶ 그 ‘사람의 아들’이 최후 만찬 말씀과 연결.
- ▶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들’”의 임박한 영광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그의 “떠남”, 곧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을 뜻.
- ▶ 이 맥락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세계명을 준다. 구약성경과 유대교에서 계명과 언약은 동전 양면 (출 19:5-8; 왕상 11:11).

1. 마가복음 10:45 분석을 통해 예수님이 “인자”로서 최후 만찬 말씀하심 중



## 5) 계명의 근밀한 관계는 예레미야 31:31~34에서 볼 수 있다.

Jesus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 ▶ 이 말씀에서 새 언약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장에 새겨질 새 법과의 상호 동의적 관계가 잘 나타난다 (cf. 겔 36:25-28; 고후 3:1-18).

1. 마가복음 10:45 분석을 통해 예수님이 “인자”로서 친후 만찬 말씀하심 중





## 6) 요한복음 13:34

Jesus

- ▶ “새 계명”은 최후 만찬 말씀의 “새 언약”에 대한 요한의 해석.
- ▶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구속적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 용서하실 것을 선취적으로 (proleptically) 계시 (요 13:1-11).
- ▶ 예레미야 31:31-34, 최후 만찬 제정 잔 말씀 숨은 배경이 암시 됨.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들’”로서 그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심으로, 요한복음 13:31-34도 “그 ‘사람의 아들’”이 최후의 만찬 말씀들과 확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 마가복음 10:45 분석을 통해 예수님이 “인자”로서 최후 만찬 말씀하심 중

명



### 7) 디모데전서 2:5f

Jesus

하나님은 한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 ▶ F. Lang—“그리스도를 중보자라 함은 최후 만찬 말씀의 “언약에 대한 또 하나의 반향”.
- 히브리서 8:6; 9:15; 12:24: 히브리서 8:6은 모세법에 의한 제사장 제도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 만큼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고 언급.

1. 마가복음 10:45 분석을 통해 예수님이 “인자”로서 최후 만찬 말씀하심 중



7) 디모데전서 2:5f 

Jesus

- ▶ 그 후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 구절인 예레미야 31:31-34을 인용 (히 8:8-12). 히브리서 9:15과 12:24도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라 부른다.
- 디모데전서 2:5f.의 사람이 예수의 자기 칭호 “그 ‘사람의 아들’”을 반영하고 있다면, 디모데전서 2:5f.는 “그 ‘사람의 아들’”이 최후의 만찬 제정의 잔의 말씀과 연결됨 시사. 이 맥락에서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으니...”는 마가복음 10:45말씀과 함께 최후 만찬 말씀 반영. 이같이 디모데전서 2:5f.는 “그 ‘사람의 아들’”이 성만찬 말씀과 연결되어 최후 만찬 말씀과 마가복음 10:45 말씀과 같은 맥락.

1. 마가복음 10:45 분석을 통해 예수님이 “인자”로서 최후 만찬 말씀하심 중





## I. 마가복음 10:45 분석을 통해 예수님이 “인자”로서 최후 만찬 말씀하심 증명

결론적으로 최후의 만찬의 말씀들은 예수가 “그 ‘사람의 아들’”로서 한 말씀. “그 ‘사람의 아들’” 수난 예고(막 8:31par)와 병행. 최후의 만찬 말씀도 “그 ‘사람의 아들’”의 죽음 “넘겨짐” 언급 (막 14:21par). 이 논증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아들’”과 최후 만찬 말씀 결합이 원래적이며, “그 ‘사람의 아들’” 수난 예고가 진정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 2. 막 10:45과 친후 만찬 말씀의 배경으로써 이사야 43장과 이사야 53장

마가복음 10:45 말씀과 성만찬 말씀 함께 해석 관찰



## 1) 마가복음 10:45 말씀과 성만찬 말씀 함께 해석 관찰

Jesus

- 최후 만찬에서 이사야 53:10-12을 암시하여 자신을 내어 줌 표현 (참조: 누가복음 22:19; 고린도전서 11:23)
-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에 대한 예수의 말씀은 이사야 53:10-12 암시”.
  - 마가복음 10:45의 λύτρον (대속물)은 이사야 53:10의 “아삼, 속죄제물” 번역이 아니라, 전치사와 함께 이사야 43:3f. “카파르, 대속물”에서 온 것.
  - 마가복음 10:45은 이사야 43:3f.와 이사야 53:10-12 암시. 이사야 43:3f.의 “대속물”과 이사야 53장의 “속죄제물” 배경. 예수님의 죽음은 이사야 53:10-12의 하나님 종 (Ebed)의 “속죄제물”로서 이스라엘과 열방들의 죄의 형벌 담당, 그들을 마지막 심판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는 대신적 대속물로서의 고난.



## 2. 막 10:45과 최후 만찬 말씀의 배경으로써 이사야 43장과 이사야 53장



## 1. 마가복음 10:45 말씀과 성만찬 말씀 함께 해석 관찰

Jesus

이사야 43장과 53장 모두 마가복음 10:45배경. 야웨의 종 (Ebed Yahweh)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속죄와 구속을 위해 내어주기 원했던 대속물 (카파르)와 속죄제물(아삼)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섬김. 마가복음 10:45을 이사야 53장에서 직접 도출할 수 없음 주목. 이사야 43:3f.과 이사야 53:10-12를 결합시켜 초대교회가 마가복음 10:45을 만들었다는 가능성 희박하며, 예수가 독창적으로 이사야 43:3f.와 이사야 53:10ff결합시켰다고 보는 것 타당.



## 2. 막 10:45과 최후 만찬 말씀의 배경으로써 이사야 43장과 이사야 53장



## 1. 마가복음 10:45 말씀과 성만찬 말씀 함께 해석 관찰

Jesus

- ▶ 이사야 43장과 53장의 배경하에서 마가복음 10:45을 해석.
- ▶ “λύτρον, 대속물”은 죄로 인한 파멸로부터 인간 생명 속량하는 대속적 고난.
- ▶ Stuhlmacher 결론: “예수의 자기를 내어준은 이스라엘을 위한 대신일 뿐 아니라 세계 열방,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대신.”
- ▶ 예수는 자신이 죄많은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을 위한 속죄 제물로 그들을 최후 심판의 정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한 대속물 (λύτρον)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는 야웨의 종으로 의식.



## 2. 막 10:45과 최후 만찬 말씀의 배경으로써 이사야 43장과 이사야 53장





## 1. 마가복음 10:45 말씀과 성만찬 말씀 함께 해석 관찰

Jesus

- ▶ 마태복음 8:11f.에서 보여 주듯, 예수님은 이사야 43:5f.(cf.사 53:10)의 “네 자손”과 “내 아들들”과 “내 딸들” 안에서 이스라엘 후손만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을 본 것.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로부터 종말의 하나님 새 백성을 모으려 하심. 그는 속죄 제물과 그들을 위한 대속물로서의 자기 죽음을 통해 이사야 43장과 53장 예언을 성취시킴으로 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하려 하심.
- ▶ 이스라엘 속명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방을 위한 선교적 사명(즉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중보자가 됨)을 감당하는 것. 이 주제를 야웨의 종 노래 강조 (사 42:1, 4, 6; 49:6; 52:15).



## 2. 막 10:45과 최후 만찬 말씀의 배경으로써 이사야 43장과 이사야 53장



## 1. 마가복음 10:45 말씀과 성만찬 말씀 함께 해석 관찰

Jesus

- ▶ 마가복음 10:45 말씀처럼 예수는 이상적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여 죄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상적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그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대속의 임무도 성취.
- ▶ 예수가 자신과 동일시한 다니엘 7장의 천상적 인물 (“한 사람의 아들 같은”)과 이사야 53장 야웨의 종 (Ebed Yahweh) 사이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상적 백성의 내포적 대표자 (the inclusive representative)라는 공통점.



## 2. 막 10:45과 최후 만찬 말씀의 배경으로써 이사야 43장과 이사야 53장



## 1. 마가복음 10:45 말씀과 성만찬 말씀 함께 해석 관찰

Jesus

- ▶ 다니엘 7장으로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이상적 백성의 대표자로 자신의 신분을 이해한 예수는 야웨의 종 안에 자신의 임무가 나타나 있음을 보았다.
- ▶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속죄받고 구속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을 대신적으로 대표적으로 성취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 대신 고난 받음 의미. 예수께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 그들의 선교적 숙명을 대신적으로 성취함 의미. 이렇게 야웨의 종 (Ebed Yahweh) 역할을 성취함으로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말적, 이상적 백성을 체현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종말의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는”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



## 2. 막 10:45과 최후 만찬 말씀의 배경으로써 이사야 43장과 이사야 53장

### 3. 최후만찬 말씀에 나타난 “그 ‘사람의 아들’ ”로서 예수님 사역 이해

- ▶ “그 ‘사람의 아들’ ”의 말씀임을 논증하였던 최후의 만찬 말씀 (막 14:22-25; 마 26:26-29; 눅 22:18-30; 고전 11:23-26) 에서 예수님은 떡으로 자기 자신의 내어 줌(self-giving)을, 잔으로 자신의 피 흘림, 즉 모두를 위한 자기 자신의 희생 (self-sacrifice)을 의미.
- ▶ 이렇게 잔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레미야 예언 (31:31ff.)의 성취로서 새 언약이 출애굽기 24:8의 옛 언약의 후형 (typology)으로서의 자신의 피흘림에 의하여 성립될 것 표명.





### 3. 친후만찬 말씀에 나타난 “그 ‘사람의 아들’ ”로서 예수님 사역 이해

- ▶ 새 언약과 죄 용서의 이러한 결합은 신약성경에서 예레미야 31:31-34 구절이 언급되어 질 때마다 나타남 (히 8:8-12; 9:14f.; 10:16f.; cf. 롬 11:27).
- ▶ 잔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야웨의 종으로서 흘릴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
- ▶ 잔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야웨의 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속죄 사상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의 죽음을 언약을 세우는 제사로 보는 해석 안에는 이사야의 야웨의 종으로서 자기 이해 반영. 왜냐하면 이사야 42:6과 49:8에서 종 (Ebed)은 백성에게 언약으로 주어졌기 때문.





### 3. 최후만찬 말씀에 나타난 “그 ‘사람의 아들’ ” 로서 예수님 사역 이해

- ▶ 예수는 자신의 피흘림으로 “많은 사람”을 위한 속죄를 가져 오며 새 언약을 세우는 야웨의 종으로 자기 이해 표현.
- ▶ 최후의 만찬에서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속죄와 언약을 위한 제사로 해석했을 때,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속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것 보심 (누가복음 22:28-30).
- ▶ 언약의 방법으로 그의 추종자들에게 βασιλεία를 주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 백성 또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의 통치권을 나눌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것 의미.





### 3. 최후만찬 말씀에 나타난 “그 ‘사람의 아들’ ”로서 예수님 사역 이해

- ▶ “그 ‘사람의 아들’ ”로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받고 그 것을 자기 추종자들에게 주어 그들로 그 통치에 참여하는 하나님 종말 백성이 되게 한다.
- ▶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아들’ ” 말씀이라고 주장한 최후의 만찬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들’ ”로서 그의 임무를 묘사. 그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천상적 인물이며, 그 분으로서 그는 종말의 하나님 백성에 관한 하늘의 뜻을 실재화. 그는 종말의 하나님 백성을 실현시키는 분. 그는 야웨의 종의 역할을 스스로 떠맡음으로써 이 임무를 성취, 야웨의 종은 하나님 백성의 숙명을 대신적으로 성취, 하나님 백성의 속죄를 위해 스스로 대신적 고난을 당하며 (사 53장), 그들을 위해 언약의 중보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 (사 42:6; 49:8).





### 3. 최후만찬 말씀에 나타난 “그 ‘사람의 아들’ ”로서 예수님 사역 이해

▶ 이렇게 예수님은 최후 만찬에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속죄와 언약의 제사로 해석. 이것은 그의 βασιλεια-선포와 βασιλεια로의 초청의 정점(culmination).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이같은 가르침과 이 죽음이 옳다고 확증할 것이며 그의 속죄와 언약의 제사를 덕입는 자들을 그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설립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의 창조.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과 그가 그 왕국 안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메시아 잔치를 베풀 그 날을 기대하는 것 (마 14:25; 눅 22:29-30).







## 4. 최후의 만찬에 나타난 예수의 자기 이해와 신약의 다른 본문들의 이해의 일치성

아래 신약 본문들은 위의 해석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언역을 세우는 제사로 이해





# 1) 히브리서 9:14f.

Jesus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증보자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1) 히브리서 9:14f.

Jesus

- ▶ 히브리서 9:14은 예수의 속죄 제사 언급.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 기업 의미 (Cf. 마 25:34; 고전 15:50).
- ▶ 속죄, 구속, 새 언약,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축복 모두 나타남.
- ▶ 예수의 사역을 속죄, 구속,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 그의 나라를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들(cf. 롬 8:14-30)로 만드는 새 언약을 세우는 관점에서 해석.
- ▶ 마가복음 10:45과 최후 만찬 말씀에 대한 위 해석과 일치.





## 2) 히브리서 12:22~24 ●

Jesus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 2) 히브리서 12:22~24

Jesus

- ▶ “시온산,..하늘의 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뿌린 피”는 예수의 속죄와 언약의 제사를 가리킴. 속죄, 언약,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함께 나와 예수님의 속죄와 새 언약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 의미.



### 3) 요한계시록 1:5~7

Jesus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 3) 요한계시록 1:5~7

Jesus

- ▶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이어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βασιλεια(왕국)로 만드는 것 언급.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에 기초해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었다는 출애굽기 19:5f 반영.
- ▶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으나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우리를 그의 아버지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 ▶ **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것이다.**
- ▶ 요한계시록 1:13은 높임받은 그리스도를 “한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든 분. 여기 “그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됨과 그 아들 됨을 우리에게 중보해 주는 분으로 인식함은 마가복음 10:45의 예수님의 말씀 및 최후의 만찬의 말씀과 일치.





## 4) 요한계시록 5:9,10

Jesus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 4) 요한계시록 5:9,10

Jesus

- ▶ “사람을 피로 사서”는 마가복음 10:45의 예수의 대속물 되심 말씀과 상통.
- ▶ “죽임을 당하사”는 예수의 죽음을 야웨의 종 관점 (사 53:7)으로 묘사.
- ▶ 요한계시록의 “죽임당한 어린 양” (5:6, 9, 12; 13:8)은 그리스도 묘사할 때 이사야 53:7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로 묘사된 야웨의 종 상기.
- ▶ 9절에 나오는 “족속, 방언, 백성, 나라들”라는 구절의 원천은 다니엘 3:4, 7, 29; 5:19; 6:25; 7:14 상기. 11절의 “천천 만만” 역시 다니엘 7:10과 병행.



## 4) 요한계시록 5:9,10

Jesus

-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심 찬양 (출애굽기 19:5f.)
- ▶ 그리스도는 그의 구속과 언약을 세우는 죽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불러 하나님께 대하여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아 세상을 다스리게 하심.
- ▶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사장 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음 의미.
- ▶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땅을 다스릴 것.



## 4) 요한계시록 5:9,10

Jesus

- ▶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은 다니엘 7:18, 22, 27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의 통치에 대한 예언 반영하여, 요한계시록 5:9,10도 예수님 사역이 “그 ‘사람의 아들’”의 사역의 관점에서 인식되고 있음 확증.
- ▶ 요한계시록 5:9, 10에서의 예수님 사역이해는 최후 만찬의 예수 말씀 (막 10:45말씀 포함)과 내용뿐 아니라 형식도 일치.
- ▶ 예수의 사역을 다니엘 7장과 이사야에 언급된 “그 ‘사람의 아들’”과 야웨의 종 (Ebed Yahweh)의 관점에서 이해. 이것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 5:9f.는 (막 10:45을 포함해서) 최후 만찬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었음 확증.



## 5) 결론 ●

Jesus

예수의 사역에 대한 위의 이해는 바울 서신들과 요한 문서 곳곳 산재하면서, 다니엘 7장과 이사야 53장 상기.

그런데 (막 10:45의 말씀을 포함하여) 예수의 최후 만찬의 말씀이 교회의 신학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회에 의해 만들어 졌다고 하는 주장은 참으로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원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입증된 것으로 보았고, 그러기에 그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구원의 사건 (Heisgeschehen)으로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 5) 결론 ●●

Jesus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예수의 죽음이 구원의 사건 (Heisgeschehen) 이라는 케뤼그마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더욱이, 예수가 다니엘 7장과 이사야 42-53장을 독창적으로 결합한 것이라는 전제 외에는 교회가 다니엘 7장과 이사야 42-53장의 결합에 비추어 예수의 죽음을 “그 ‘사람의 아들’ ” 과 야훼의 종 (Ebed Yahweh)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된 것에 대한 진정한 종교사적 내지는 전승사적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 5) 결론

Jesus

$\beta \alpha \sigma \iota \lambda \epsilon - \iota \alpha$  - 선포 이위에 적어도 예수의 열두 제자 임명 (막 3:13-19 par) 선교 파송 (막 6:8-11; 눅 10:4-11; 마 10:9-14)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말 백성을 모으려고 했음을 명백히 시사.

막 10:45 말씀을 포함하여, 예수의 최후 만찬의 말씀은 진정성이 있으며, 히브리서 9:14f.; 12:22-24; 요한계시록 1:5-7; 5:9f. 같은 구절들은 예수께서 최후 만찬에서 가르친 대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해석 보여줌.





## 5. 최후 만찬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도



1. 예수님은 자신을 다니엘이 본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천상적 인물, 종말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 그는 하나님의 종말의 백성에 관한 하늘 어전 회의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계획 실제화하도록 부르심 이해.



## 5. 친후 만찬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도



2. 그는 이사야 42-61장에 예언된 야웨의 종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자기 임무를 성취해야 한다고 이해. 따라서 그는 “많은 사람을 위해” 죽어야 했다. 그의 죽음은 그에 의해 대표되는 자들, 곧 그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덕입는 자들의 죄를 속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종말 백성으로 하나님께 바친다. 예수의 죽음은 새언약을 출범시키는 제사. 대신적 속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고 새 언약을 세우는 야웨의 종 역할을 성취함으로, “그 ‘사람의 아들’”인 예수는 종말의 하나님 백성에 관한 하늘 계획 (단 7) 실현.







## 5. 최후 만찬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도



3. 그는 종말의 하나님 백성의 창조를 하나님 나라 선포의 절정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다고 선포했던 그는 최후 만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핵인 열두명 (또는 열한명)에게 그들이,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파루시아)을 통해 시작될 그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천국의 기쁨과 통치를 나눌 것임을 가르침.





## 5. 최후 만찬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도



4.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의 자녀가 됨을 의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그 자격으로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원하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피조물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되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사랑과 부요함으로 인하여 살게 하기를 원했다. 이것이 구원. 예수는 자신이 이 구원을 이루도록 운명지어졌음을 알았다. 그는 다니엘 7장으로부터 이같은 자기 이해를 얻었고,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자기 칭호를 사용해 그것을 표현하였으며, 이사야 42-61장에 예언된 야웨의 종 (Ebed Yahweh)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것을 성취.

